

마을 전승의례 시대 흐름 타고 변화 움직임

제주시, 입춘 지나 포제·당제·해신제 등 10일까지 집중 별도 전승의례 조례 따른 봉행 예산 지원 등 전승 기반 일부 마을포제 제관 구성 고충... 여성 특별제관 참여도

제주시지역의 마을별 새해 전승 의례가 입춘이 지난 뒤 잇따라 전망이다. 이 과정에 시대 흐름을 타고 마을포제의 여성 제관 참여 요구 등 변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1일 제주시가 집계한 2023년 마을별 전승 의례 계획을 보면 포제, 본향제, 당제, 해신제 등 20개 읍·면·동 총 113건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가 입춘 뒷날인 2월 5일 정월 대보름부터 10일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22건보다 다소 줄었으나 마을

내부 사정으로 간소화한 의례를 포함하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 위주의 유교식 색채가 강한 마을 포제, 무속굿으로 진행되는 당굿 등 명칭은 다르지만 이들 의례는 새해에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교식인 '납읍리 마을제', 송당분향당에서 이뤄지는 '송당리 마을제'는 각각 제주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대개 설초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들 전승 의례는 마을별로 포제와 당굿이 각기 따로 열리거나 그중

하나만 개최되는 등 공동체 형편에 맞게 치러져 왔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제주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서 마을포제 등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마을 전승 의례 보존·전승을 위한 봉행 사업 등에 제주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한편으로 전승 기반의 취약성을 방증한다. 일부 마을에서는 제관 등 포제에 참여할 인원이 부족해 예를 먹는 경우가 있다. 애월읍 모 마을의 이장은 "제를 지내려면 12명 정도의 제관이 필요하다"며 "마을제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과거와 달리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입제에서 봉행까지 2박 3일

간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남성 제관 중심의 유교식 포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60대 이상 마을 여성들이 마을제 음식 준비에 참여할 뿐 대다수 마을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제관 명단에서 여성을 제외하고 있어서다. 다만 현재 여성이 이장으로 있는 애월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역대 이장들이 맡아온 초헌관 대신 특별제관으로 참여해 왔다.

제주향교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제례에서는 여성 아헌관을 볼 수 있다"면서 "여성 이장이 선출되고 사회 진출도 늘고 있는 때에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제관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심지 공영 주차장 신설 박차

서귀포시 2025년까지 428억 투입 541면 조성 계획 4곳 중 2곳 내년 개소... 1면당 조성비 8000만원꼴

서귀포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동지역 주차장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동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신규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158억) 146면 ▷AI스마트-파크 시스템 구축(150억) 200면 ▷동홍(풍남) 공영주차장(40억) 70면 ▷강정 제1호 공원 공영주차장(80억) 120면 등이다.

이에 시는 2021년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이들 4개 사업에 428억 원을 투입해 주차면 541면(1면당 조성비용 7911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 주차장 조성을 통해 동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는 동홍동에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를 신설하면서 주차빌딩(2층 3단)을 짓고 있다. 올해 13억9800만 원을 투자해 내년 개소할 예정이다. 또 동홍 공영주차장 조

성에 올해 36억 원을 투입해 내년 문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40억 원을 들여 서흥동 옛 한전 사옥 부지에 통합 콜센터와 전기차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주차빌딩이나 노외주차장 방식의 AI 스마트-파크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내년 2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개소는 2025년 예정이다. 강정 제1호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중복지결에 따라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 150%대를 보이고 있으나 도심지의 주차난은 여전하다. 이는 자동차등록대수보다 주차면이 월등히 많지만 도심 상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은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 주차장 회전율(1면당 3.8대 꼴)을 비롯해 교통량이 많은 원도심의 주차장 보급률(70~80%), 개인 주차장 활용률이 모두 낮은 데 기인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저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소풍 나온 아이들 기운이 오르며 맑은 날씨를 보인 1일 제주시 사리봉공원에 소풍 나온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시행"

서귀포시 식품가공·즉석판매제조업체 638곳 홍보

서귀포시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 17일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식품 관련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관련 제조·유통·판매 업체는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시는 지난해 소비기한표시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638개소에 홍보·지도했다. 특히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기한표시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

하는 제도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4개 식품 유형·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잠정 설정했고, 2025년까지 2000개 품목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올해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지원

서귀포시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적·지속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 보강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했고, 지난달 지역 내 사회적기업

을 대상으로 지원대상기업을 공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48개 사회적기업 가운데 14개 기업이 농산물 가공설비, 소형분쇄기, 화훼냉장고 등 기업의 자립기반에 필요한 시설 보강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금탁기자

제주시장 2023년 연두 방문 오는 6~10일 26개 읍면동서

강병삼 제주시장이 6일 한경면을 시작으로 5일에 걸쳐 '2023 읍·면·동 연두 방문'에 나선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6~10일 도서지역인 우도·추자면을 포함한 26개 읍·면·동을 차례로 찾은 이번 연두 방문은 새해를 맞아 제주시정의 성과를 알리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제주시는 종합적인 시장 설명과 건의 사항 수렴 위주의 기존 운영 방식과 달리 제주시정 핵심 7개 분야 성과 공유와 그동안 시민들이 건의했던 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의 내용 중 법령·제도·절차상 문제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그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떠나요! 마닐라닐라닐라! **제주↔필리핀/마닐라 3박4일** 양국정부인허가조건

관광 125만원 (미취학아동: 85만) **골프 159만원** (54H/3조이상 단독) **항공권 69만원** (한정판매)

추가좌석 확보 마감임박!!

02. 25(토) ~ 02.28(화) 출국 20:45-23:15 귀국 16:00-20:30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 5성급호텔, 차량료, 한국어가이드,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그린피/54H, 캐디피&가트피등 불포함사항: (관광)가이드&기사님, (골프)캐디팁(18홀/\$2), 매너팁, 개인비용 *전세계의 경우 양국(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재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